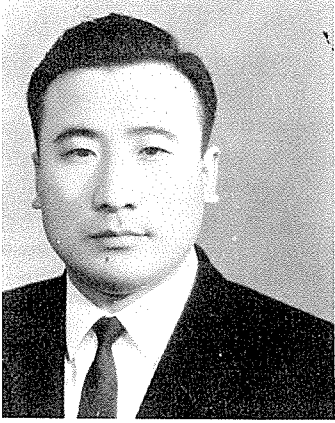


# 意志의 齒科人

## 吳柄植 先生님



「맨발로 20餘里를 걸어야만 學校를 갈수 있었던 어린 時節을 생각할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故郷에 내려가 公會堂 비슷한 建物에다 國民學校過程의 私設學校를 만들어 于先 걷지 않아도 學校라는 名을 갈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當時를 回顧하는 意志의 齒科人 吳柄植先生님, 그는 地域社會發展에 關係되는 일이라면 닥치는대로 해 나갔다. 仁川 앞바다 어려섬을 돌면서 落島住民의 口腔狀態를 살살히 點檢했다. 그리고 進學을 拋棄해야 하는 學生에게는 學費도 대주었다. 運動具도 사주었다. 齒科醫師로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社會에 이바지하기 爲해 最善을 다 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作定이란다.



#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73) 0474 (72) 9712

公會堂學校가 그後 아래國民校의 分校로 지금은 어엿한 영평국민학교가 되었다. 私立國民學校를 設立한 概念이 지금의 그것과는 달랐다. 처음 兒童을 모아 놓는 모든 學費를 全擔했다.

公立國民學校가 되고 나서는 圖書館을 開館, 7千餘卷의 藏書를 保有한 一級의 面貌를 갖추었다. 運動器具도 힘 닿는때까지 具備해 놓았다.

每年 下鄉해서는 그 학교를 지금도 보살피고 있다. 그리고 每年 首席 卒業者에게는 高級 손목時計를 禮物로 주어 그의 前途를 빌어주고 있다.

濟州가 故鄉이며 濟州大學을 卒業, 中等學校正敎師資格證을 所持하고 있는 吳柄植會員은 1965年 國家試驗을 通經 齒科醫師가 되면서 仁川에서 齒科醫院을 開設한 때문에 自然히 意志의 나래는 仁川地方에서 鷺수밖에 없었다.

海兵 士兵으로 있으면서 6.25戰亂當時 各種 戰鬥에 任했으며 特히 仁川과 元山 上陸作戰 時에는 赫赫한 功을 세웠다. 이런 因緣으로 해서 海軍, 海兵 出身의 모임인 海誓俱樂部를 組織하는데 吳會員의 協力이 絕對의이었다. 이모임에서 年 3回 各 西海 落島를 돌면서 7年째나 無料診療를 實施해 오고있다.

各科醫師가 한팀으로 構成되어 있는 이 事業에서 齒科患者 5百餘名에게 惠澤을 주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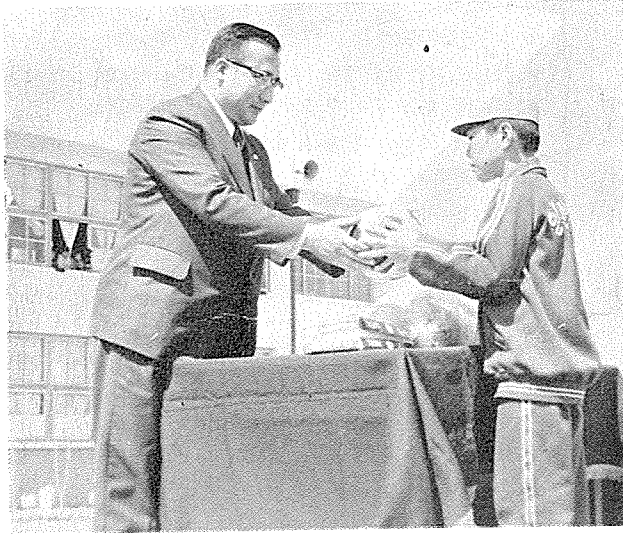
特히 口腔外科를 좋아해서 巡回診療時 處置할 수없는 患者에게는 仁川 吳柄植齒科에서 手術을 해준다. 勿論 無料이다.

西海의 어려움중 “자월島”와는 “나란이”를 맺고 學用品, 新聞等을 보내주고 있으며 지난봄 卒業한 배영실嬢에게 中學進學을 시켜주었고 앞으로도 學費等 一切을 負擔한다는 것이다.

其他의 섬에도 簡單한 運動具를 사주고 또 診療가 끝나면 口腔啓蒙講演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班常會에 參席 不遇한 이웃을 돕는것도 계을 리하지 않았다.

二世가 今年에 延世大 齒大에 入學, 곧 齒科家族을 이



意志를 펼 濟州道 영평국민교. 學生代表에게 運動具를 傳達하고 있다.



西海落島에 자리잡은 서화국민교에도 運動具를 寄贈했다. (校長先生님과 體育敎師)

보건사회부인정 제90호



# 인천치과기공소

경기도 인천시 중구 경동 143

2-7604 (二)七六〇四

代表 成 俊 桓

지방주문환영  
신속배달

루게 된 吳柄植會員은 그간의 功勞로 閔寬植文教部長官 및 朴環遠內務部長官의 感謝狀을 비롯하여 數 많은 感謝牌가 이를 雄辯하고 있다.

「收益의 50%를 社會에 바쳐 社會에 對한 齒科醫師像을 浮刻시키고 權益向上에 微力이나마 다하겠다」고 굳은 意志를 펴 보였다.

院長 吳柄植會員을 비롯하여 男·女齒科醫師가 3名, 保健看護士, 看護員, 技士, 事務長이 各各 1名, 補助看護員이 2名이며 Unit Chair 5台等 個人醫院으로서는 大規模였다. 이곳에서 아침 6시 30분 以後부터 每日 100名에 가까운 患者를 施療하고 있다.



「나란이」를 맺은 자월도에서 無料診療를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診療가 끝나면 口腔啓蒙講演도 세놓을 수 없는 日課이다.

日日郵遞局長으로 地域社會 發展에 힘쓰는 勿論, 班常會에도 參席 不遇이웃도 돕는다.

# 興 安 齒 材 商 社

代表 尹 正 權

서울特別市 中区 南大門路 5街 20-1

(청송빌딩 308호 · 지원다방 3층)

22-6213